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김주형 엠마누엘, 전지나 베아트릭체
 다음주 독서: 이제니수 로사, 이은아 아그네스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다음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이번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모어, 김태진 하상바로
 다음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로, 우명희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 무 금: \$110
 1 차 봉헌금: \$ 271
 2 차 봉헌금: \$142

 합 계: \$ 523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늘의 묵상

충남 아산의 학(鶴) 마을에 이런 전설이 전해 온다고 합니다. 옛날 박 생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은 학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학의 동지에서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국 상인들이 이 돌을 보고는 놀라면서 일천 금에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가지러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생원은 횡재하였다고 기뻐하며 그 돌을 제값에 걸맞게 만든답시고 비단 수건에 싸고 흙을 털며 반질반질해지도록 날마다 닦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중국에서 돈을 싣고 돌아온 상인들에게 그동안 잘 닦아서 소중히 보관한 돌을 보란 듯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크게 낙심하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혼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환혼석이라고 부르는 희귀한 돌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반듯반듯하게 닦는 사이 돌의 정기가 다 사라지고 말았소. 이제 이 돌은 그냥 평범한 돌일 뿐이요.” 그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지는 것은 번듯한 건물이나 잘 차려입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힘없고 고통 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될 때입니다. 이런 정신을 잃고 나면 교회는 가진 자들의 향연, 생명 없는 친목 모임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멋진 건물에 앞서, 정의와 사랑을 위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신앙인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27 주일]

2011 년 10 월 1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5, 1-7

<제 2 독서> 필리피서, 4, 6-9

화답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21, 33-43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복음 옆면에서 계속)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오늘의 성가] 시작: 461 봉헌: 340 성체: 501 파견: 271



생명의 말씀

욕심의 결과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에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몇 푼의 동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동전이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겨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더 많이 나오게 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졌고 샘물은 말라 버렸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결과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이러한 욕심이 나옵니다. 주인은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우는 등 포도 수확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는 소작인들에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이 멀리 있어 못 돌아올 줄 알고 그 밭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잡아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야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작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일구는 포도밭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결과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못된 소작인의 모습과 위의 예화인 욕심 많은 노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이를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실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족, 재산, 친구, 지금의 모습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기에 불평과 불만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고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견진 교리와 예비자 교리 첫 모임이 있습니다.
- 주소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성당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주현 안토니오(jhkim73@gmail.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10 월 8 일) 친교는 성당 지하 행사 관계로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카톨릭 교리

원죄 교리의 핵심은?

창세기 3 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따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과일을 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일을 하나 따 먹은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였으므로 하느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또 하느님과 똑같아지려고 하였으므로 하느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이 원조들이 지은 죄 즉, 원죄(原罪)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그런데, “먼 옛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첫 사람들의 범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을 드러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 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로마 5,19) 즉,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죄 교리의 핵심은 인간의 죄스러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

김지영 사무엘 신부